

시니어를 위한 노인놀이터의 개념과 유형

The Concept and Types of Elderly Playground for the Senior

고민정*, 이건웅**, 김상헌***

상명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Ko Minjeong*, Lee Gunwoong**, Kim SangHeon***

Sangmyung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요약

21세기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복지관은 급변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채워 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니즈를 충족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놀이터가 필요하다. 노인놀이터는 실내형 노인놀이터와 실외형 노인놀이터가 있으며, 노인전용놀이터와 다세대놀이터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노인놀이터는 처음 중국에서 개발해 설치되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형 노인놀이터의 개발을 위한 개념과 유형 등을 분석해 본다.

I. 서론

우리나라는 출산율, 사망률이 감소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6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이었는데 2000년에는 74.9세,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77세가 되고, 2020년에는 78세, 그리고 2030년에 가면 평균 80세로 연장되어 인생 80년 시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같은 주무부처는 노인의 문화정책 혹은 실버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문화복지관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노인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료를 노인들 삶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고용기회, 소득창출 등 가치창출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이 있는데, 현재의 노인복지관으로는 21세기 노인문화복지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21세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노인놀이터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시대와 진화한 노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놀이터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다.

II. 본론

1.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중 주로 노인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드니 딜릭(Sidney Dillick)의 견해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문제와 복지 욕구를 충족케 하는 적극적인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조직화하는 작업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노인문화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 36조에 규정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즉, 주민인 노인들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 문제 중 주로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케 하는 적극적인 주민의 일원인 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노인들을 조직화하는 작업까지 필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화복지관은 건강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문화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고 노인이 주체가 되어 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다목적적인 노인문화복지관이다.

미국의 경우 1965년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의 제정 때부터 노인복지관(Senior Centers)의 건립과 발전에 관심을 두어왔다. 1973년 개정시 「노인법」에 다목적 노인문화복지관을 추가했는데, “노인에게 건강, 정신건강, 사회, 영양, 교육서비스와 문화여가활동의 광범위

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지역사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일본 「노인복지법」 제20조 7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며, 지역의 고령자들에 대한 각종 상담서비스 및 건강증진, 사회적 문화교양의 향상(생애 학습프로그램),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등 편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 시설이다.

2. 새로운 개념의 노인놀이터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노인놀이터는 노인을 위한 전용 놀이터를 의미한다. 노인은 어린이와 달리 근육과 골격이 퇴화되어 빠르고 힘을 요하는 능동적인 놀이기구보다 정적이고 소프트한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운동장비는 유연성과 부드럽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장비가 필요하며, 고정식 자전거, 크로스 트레이너, 윗몸일으키기 기계, 러닝머신도 필요하다.

같은 연령대가 모이는 노인놀이터는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되고, 집에서 야외로 삶의 공간이 확장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은 모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노인놀이터는 실내형 노인놀이터와 실외형 노인놀이터가 있으며, 실외형은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노인에 맞는 운동장비와 운동 프로그램이 중심이 노인놀이터다. 다세대놀이터는 노인들이 손자손녀와 함께 놀 수 있는 복합놀이터를 의미하며 일반 성인도 즐길 수 있다.

실내형 노인놀이터는 야외보다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구비할 수 있다. 운동 장비는 물론 디지털 문화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전용 놀이터뿐만 아니라 다세대가 즐길 수 있는 멀티문화놀이터도 가능하다.

표 1. 노인놀이터 유형

실외형 노인놀이터	노인전용놀이터
	다세대놀이터
실내형 노인놀이터	노인전용문화놀이터
	다세대문화놀이터

〈표 1〉은 노인놀이터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 좁은 의미의 노인놀이터는 실내와 전용노인놀이터를 의미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은 다세대노인놀이터를 함께 구성해 한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멀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노인놀이터는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가 중심이 21세기형 복지관을 의미하고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미국의 경우, 뉴욕에서 샌 안토니오와 마이애미에 이르는 약 15개 도시에서 야외 노인놀이터와 다세대놀이터가 공존하고 있다. 노인놀이터의 형태는 흔히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외 운동시설처럼 설치하는 경우도 있

고, 산책로, 간단한 트레킹 코스, 자전거도로 확장된 형태도 있다. 현재 실내형 노인놀이터의 형태는 거의 없으며, 실내 공간에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

III. 결론: 한계와 과제

노인들의 참여가 부족하며, 도농 간의 간극이 큰 게 현실이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많아 노년을 즐기거나 무기력하게 보내는 소외된 계층이 많다. 따라서 노인문화기관의 역할과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노인의 눈높이에 맞게 낮춰 참여자를 늘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협업이 필요하다.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문화에 집중되면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보완하거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정부 기관,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같은 관계 주무부처의 협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단계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의 노인정을 노인공동체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의 인식을 전환을 통해 노인문화기관과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단계별로 협력 사업과 파크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문화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 NCCA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문화 전문가, 복지 전문가, 보건 전문가 등이 협업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통합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2] “201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7.
- [3] “201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17.
- [4] Anastasia Loukaitou, PLACEMAKING, FOR AN AGING, POPULATION, Lewis Center for Regional Policy Studies, 2014.
- [5]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